

권씨조상 소고小考

권 오 철
wendeng@naver.com
ockhan88

* 이 글은 2008년 11월초에 위 메일주소와 ID를 가진 권오철씨가 안동권씨종보사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 편집자

얼마 전에 중국 한족漢族과 나의 조카가 결혼했는데 그 한족 며느리에게 족보를 설명해주다가, 문득 나의 뿌리는 어디까지일까 생각해보았다. 나는 고문古文을 조금 알고 쓰기는 하지만 종친회니 뭐니 하는 곳을 좋아하지 않았다. 종친회가 지역주의와 종파주의의 편협한 사고의 출발점이라 생각해왔고 이는 사회정의 문란과 사회조직의 괴사로 이어진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팝송보다 우리 가요가 그리 천박하게 안들릴 나이가 되고부터 아, 물은 물대로 흘러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다. 몇해 전 미국에 이민한 후배가 미국대 한국의 축구시합에서 미국을 응원하는 자식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기에 ‘걱정 말라. 언젠가 나 이들면 그 뿌리를 찾고 느끼고 싶어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해준 기억이 난다.

조선초 초기 5%의 지배층만이 성씨를 가지고 있던 것이 지금은 어째서 90%가 된 것인가. 중간에 핏줄과 상관없이 마구 족보에 이어붙인 것 아닌가. 나도 그중 하나인지도 모른다. 는 소리를 10여년 전 종반 어른들 앞에서 했다가 맞아죽을

뻘했다. 허나 심심풀이로라도 연어가 모천으로 거슬러 올라가듯 한번 소급해보자.

내가 안동권씨 35세世인데 이 35세에 한 세대 30년씩으로 쳐 34를 곱하면 1020이 되니, 그렇게 하여 1인의 시조로 되면 그분이 바로 우리 시조 ‘권행權幸’인데 원래 AD 929년의 ‘김행金行’이 고려 태조로부터 사성을 받았다. 이 시조 태사공의 공로는 오늘의 우리 역사를 있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후백제에 밀려 기세가 꺾이던 고려 태조가 그 도움으로 기사회생하였으니 고구려가 고려로 살아나는 결정적 계기에 공헌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태사공이 ‘김행’으로서 신라왕족이라 했으니 경주김씨慶州金氏일 터인데, 그러면 그 전에는 누가 우리의 조상일까. 참고로 서기 940년의 신라 말왕자 마의태자麻衣太子 김일金鎰이 만주의 흑룡강변黑龍江邊으로 망명을 하고 그 후손 김함보金函普가 청淸나라 황실의 조상으로 애신각라愛新覺羅의 성을 가지게 되었다. 애신은 금金의 뜻이 있는 여진말 ‘아신’이고 각라는 씨氏인데 이 녀 자는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생각하라’는 뜻을 지니는데 이것이 여진어로 ‘아신자로’라 발음된다. 그래서 임란 때 청의 태조 누르하치가 조상의 나라인 조선을 돕겠다고 제의하니 선조宣祖가 여진의 ‘상놈들이 무

슨 동족同族이나 고 거절했고 뒤에는 병자호란의 치욕을 청나라로부터 당하고 그러면서도 끝내 중국에 동화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독립된 왕조의 국가를 유지했다.

나의 할아버지가 족보책 마지막 장에 부가해 놓은 절명시絶命詩는 서세 3일 전에 지은 것인데 거기에 쓴 연호가 숭정崇禎 기원 309년이다. 명나라 마지막 황제의 연호를 이때까지도 써서 서기 1936년을 그렇게 표기한 것이다. 한심한 모화사상慕華思想이라 부끄러워하다가 어느날 중국인에게 내 족보 자랑을 하던 중 이게 튀어나왔다. 이에 내가 ‘우리는 이렇게 의리있는 민족이다. 너희 한족과 동맹했다가 너의 명나라가 망한 지 300년이 지나서도 이렇게 잊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니 그쪽도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중국의 ‘진쑤’씨는 거의 만주족이고 청나라가 망하자 성을 긴 아신자로에서 짧은 진으로 바꾸어 영화 ‘마지막 황제’에서 부의傳儀가 성명을 ‘아신자로 부이’라 하던 것이 ‘진부이’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그렇고 우리 태사공의 원성명 ‘김행’이 문무왕文武王 김법민金法敏의 후손이 아닐까. AD 660년 문무왕의 조상은 내물왕奈勿王(485)인 것이 확실하고 그 시조는 대보공大輔公 김알지金閼智(AD 65)인데 이는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문무왕의 비문에는 중국의 고대인 김일제金日磾가 그 조상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그 신령스런 근원은 멀리서 내려와 화관지후火官之后에 창성한 터전을 이었고 높이 세워져 바야흐로 융성하니 이로부터 □지□枝가 영이英異함을 담아낼 수 있었다. 투후紇侯 제천지윤祭天之胤이 7대를 전하여……15대조 성한왕星漢王은 그 바탕이 하늘에서 내리

고 그 영靈이 선악에서 나와……’ 위와 같은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투후 제천지윤전칠엽祭天之胤傳七葉’이다. 투후는 한 무제漢武祭가 흉노와 싸울 때 청년장수 광거병霍去病에게 포로가 되었던 흉노왕 휴도休屠의 아들이다. 문제는 이 김일제가 중국 사서에 나오는 유명한 흉노인匈奴人이라는 데 있다. 비문의 문맥상 문무왕의 조상은 흉노임금 김일제이다. 김일제와 그 후손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한서漢書와 열전列傳에 실감나게 나와 있고 서안西安에는 그 무덤도 있다. 신화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체가 분명한 김일제를 문무왕이 자기 조상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으니 또한 신라왕족인 우리 시조의 조상이 아닌가.

흉노제국의 황제 선우單于 아래에는 여러 왕이 있었다. 곧 사왕毘那王과 휴도왕이 다스리던 곳은 지금의 중국 감숙성甘肅省 초원이다. 하서주랑河西走廊으로 불리는 이곳을 거쳐야 서역西域 중앙아시아로 갈 수 있었다. 한무제는 흉노가 차지하고 있던 이곳을 차지하여 실크로드를 열고 서역과 무역을 텄다. 한서漢書에 따르면 기원전 121년 무렵 광거병이 쳐들어가자 흉노군은 패전을 거듭했다. 곧사왕은 황제 선우로부터 받을 문책이 두려워 휴도왕을 꺾어 항복코자 한다. 휴도가 거부하자 이를 죽이고 곧사왕은 광거병에게 항복하는데 휴도의 부인 알씨閼氏(알씨는 흉노어로 여인이며 김알지의 알지도 같은 말인데 뜻은 금金이다. 알지는 또 알타이를 한자로 표음한 것이고 알타이 또한 뜻이 금金이다. 그리고 알타이 — 알지閼智 — 금金 — 김씨金氏는 알타이산맥 근방의 흉노족과 깊은 연관은 갖는다)와 아들 김일제, 그 동생 윤륵을 포로로 하여 광거병에게 데려간다. 이들을 광거병이 한 무제에게 데려가자 무제는 그때까지 성이 없던 일제에게 성을 내리는데 금인金人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祭天하는 집안 출신이라 하여 김금씨가 되게 하였다.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 한양대 인류학과 김병모金秉模 교수는 다른 견해로서 금인金人을 알타이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알타이가 고향이고 하늘에 제사하는 일을 책임진 샤먼 출신이므로 알타이의 뜻을 따 김씨성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 김씨가 탄생하는 단초이다. BC 100년의 김일제는 자字가 웅숙翁叔이고 흉노휴도왕의 태자太子이다. 투후紇后는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하택현荷澤縣과 성무현城武縣 땅이다.

진시황의 20대조 진 목공秦穆公이 휴도왕의 후손이라는 설이 있는데 그 성은 영贏씨이

다. 기원전 10세기경에 목족으로 유명한던 대구大丘의 비자非子가 주周의 효왕孝王에게서 지금의 감숙성 청수현淸水縣인 진읍秦畝를 봉함받아 진을 일으켰다. 이후 양공襄公 때 산서성山西省 서부를 장악하는 제후국이 되고 기원전 7세기 춘추시대에 이르러 목공이 서방 12국을 통합하고 영토를 확장하여 패자가 되며 이 진나라는 감숙성 천수天水 땅에서 나라를 일으켜 섬서성陝西省 북서의 하서주랑을 차지해 천하통일의 기반을 닦았다. 간신에게 죽은 진시황의 태자 부소扶蘇의 후손이 진나라가 망한 뒤 후일의 재기를 꾀하며 서쪽으로 망명해가 한나라의 눈엣가시이던 하서주랑을 차지한 흉노족이라는 게 한국문자학회 김재섭씨의 주장이다.

신라의 김유신金庾信은 경주가 아닌 김해김씨金海金氏로서 김수로왕金首露王의 후손이다. 김수로왕은 또 김일제의 아우 윤륵의 5대손이라 한다. 이 김수로왕 등은 친척인 왕망王莽이 전한前漢을 멸하고 신新을 세우자 같이 존귀하게 되었으나 이 신나라가 곧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에게 망하므로 한반도로 망명해와 김해에서 가야국伽倻國을 세웠다는 것이다.

실제 문무왕 김법민의 비문에 쓰인 신라왕실의 선대계보에는 중국의 투후紇侯니 성한왕星漢王이니 하는 관작이 나타나고 있고 옛적에 신라 사람들이 자칭으로 소호금천씨少昊金天氏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금씨로 하였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유신의 비문에도 그가 현원軒轅의 후예요 소호少昊의 종손宗孫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남가야南伽倻 가락국駕洛國의 시조 김수로왕도 신라종실과 동성이 되는 것이다.

중국 고대에 황제현원黃帝軒轅의 뒤를 이어 BC 3000년경에 임금이 된 사람은 김씨의 시조인 소호금천씨少昊金天氏인데 바로 황제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래 소호少昊라는 사람이 있었으며 소호는 소전少典과 함께 웅족熊族인데 소호를 서쪽의 제왕 백제白帝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소호의 자손중 소호금천씨라 기록된 사람이 황제현원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태호복희씨太昊伏羲氏는 중국의 조상 화하족華夏族이고 소호금천씨는 동이족東夷族의 조상이라는 말도 있다. 소호금천씨가 황제의 아들인데 또한 황제가 동이족 묘족苗族의 조상 치우천왕蚩尤天王을 탁록涿鹿에서 물리쳤다고도 한다. 또는 치우천왕이 속국의 황제를 쳐서 서쪽으로 쫓아냈다고도 한다. 대체로 분명한 것은 김씨가 동이계의 지도자 소호금천씨 계열에서 나왔다는 추정이다.

능동춘추에 10년을 연재해온 천착물
한권의 단행본으로 발간

漢字도 우리글

한국어 어찌면 좋은가
權光旭

서두를 한번 읽기 시작하면 몰랐던 우리 말글의 병을 자각하며 잠재의식의 회오리에 말려든다. 일독을 마치고 거기에서 벗어나노라면 우리 어문의 괴저와 뇌질환으로부터의 출구가 선명히 드러나 보인다.

漢字도 우리글
한국어, 어찌면 좋은가
권 광旭



신국판 403편 · 값 1,300원 · 서점에서 구입
도서출판 해돋이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우110-044
전화 (02) 734-3085 · 732-9139 / 전송 (02) 738-8935
전자우편 haedogee@kornet.net

한자를 퇴출하고 박멸한 자리에 영어회가 파도처럼 밀려들어오며 거개의 우리말 어휘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법만 따라하느라 왜곡시켜 한국어는 뇌경색에 걸려 빈사상태이다. 영어를 국어화하기 앞서 한자부터 한국어에, 광의의 한글에 포함시켜야 한다.